

보도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일자	2022. 8. 22. (월) / 총 3매 (본문2, 붙임1)	
배포부서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051-797-4384, pr@kmi.re.kr)	
담당부서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공간연구실 박수진 연구위원(☎4731, forest21@kmi.re.kr)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KMI, IMO 글로벌링 파트너십 가입

- 해외 유입 선체부착생물로부터 해양생태계 보호 위한 노력에 동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8월 22일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글로벌링 파트너십(GloFouling Partnerships)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본 파트너십은 해상교통 확대에 따라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선체부착생물(Biofouling)로부터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2011년 IMO에서 채택한 '선체부착생물 관리지침(Biofouling Guidelines)' 이행을 위해 파트너십에서는 국가별 법·정책·제도 정비, 모범사례 실천을 위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민관협력,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파트너십에는 IMO, 지구환경기금(GEF), 유엔개발계획(UNDP) 총 3개의 국제기구가 이행파트너로 있으며, 독일연방해양수로국, 미국 헬싱키 위원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50여개 기관이 전략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희대학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선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이어 5번째로 KMI가 전략파트너로 가입하게 되었다.

파트너십 프로젝트에는 브라질, 에콰도르,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2개의 선도파트너국과 남태평양상임위원회(CPPS),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 협력기구(PEMSEA) 등 6개의 지역조정기구 등이 참여하고 있다.

KMI는 이번 글로벌파트너십 가입을 통해 해외 유입 선체부착생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와 해양오염 최소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선체부착생물 관리 분야의 민관산학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KMI 해양환경·공간연구실 박수진 연구위원은 "글로벌파트너십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과 인증체계가 국제기준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정책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선체부착생물 처리기술, 친환경 방오도료, 선체표면관리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우리의 해양, 우리의 미래(Our Oceans, Our Future)'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붙임> IMO 글로벌파트너십 프로젝트 구성

<붙임> IMO 글로벌링 파트너십 프로젝트 구성

〈표〉 IMO GloFouling 파트너십 프로젝트 구성

번호	프로젝트 구성
1	선체부착생물을 통해 이동되는 침입 수생 생물종(Invasive Aquatic Species, IAS) 이 유발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참여국의 국내법, 정책, 제도 개혁
2	2011년 선체부착생물 관리지침의 이행 및 기타 해양산업에서의 모범사례 실천을 위한 역량 구축과 기술지원
3	글로벌·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민간부문 참여 유도, 혁신적 기술개발, 재정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관협력
4	연구, 모니터링·평가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 및 기관 협력 강화
5	모니터링 및 평가

출처: IMO GloFouling 파트너십 홈페이지 자료를 기초로 작성